성배(聖杯)

(막14:22-25)

22.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6.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배(聖杯)>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거룩한 잔, 성배(聖杯)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포도주 잔을 성배라고 일컫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큰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세 때부터 수많은 문학작품 등에 이 성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배라는 겁니다.
특별히 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면, 전설에서부터 비롯된 이야기 이지만 이 성배에는 기적을 나타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관심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상영한 영화 중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있지요?
미국에 소설작가 덴 브라운의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 이 다빈치 코드도 역시 성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배에 대한 이 관심의 중심부에 서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있

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그 잔을 선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시신에서 흘러나온 피를, 그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던 그 잔에다가 받았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받은 그 성배를 들고, 아리마대 요셉이 영국으로 이주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성배를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 줬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진 성배를 찾느라고, 아주 분주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중세 유럽문학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서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서 왕이 거느리는 원탁의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들이 성배를 찾는 여정이 이야기됩니다, 아서 왕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의 관심에 불을 질러 놓은 것이지요.

다빈치 코드에서는 덴 브라운이 기발한 착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담아서 마신 그 잔이 성배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사실은 데이트를 하셨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애기를 갖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을 몸에 담게 되는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성배다.
소설가다운 착상이고, 이것이 또 가톨릭 측에서나 여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신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 모르는 대중들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이야기 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럴 수 있는가 해 가지고 또 솔깃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합니다마는, 쉽게 말해 장사를 하기 위한 상업소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 브라운이 성배를 예수님의 혈통을 몸에 받게 된, 막달라 마리아를 성배로 보는 이 발칙한 상상력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연애했다는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연애를 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심을 높이 사시긴 했겠지마는, 연애를 했을 리는 없지요?
그런데 이 상상력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성배를 이렇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성배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배가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실제 포도주를 담아 마신 그것이 성배가 아닙니다.
그 포도주는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던 그 포도주는, 지금 2012년에 병마개를 딴 어떤 포도주로도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 포도주 자체가 거기에 담겼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하나의 잔이었을 거라고 봐요.
하나의 잔에다 포도주를 담아서 예수님이 마시고 돌아가면서 다 마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 입술이 닿았다고 해서 그 잔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따라 주고 떡을 떼어 주신 것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라는 뜻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 11장 같은데 보면, 이렇게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념하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마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담으라는 얘깁니다.
마음에 담으라는 얘기에요.
찢기시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라는 것이 마음에 담으라는 얘기이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라는 얘기는 마음에 담으라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배는 뭐냐?
진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담는 그릇이 성배일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진짜 포도주를 담은 그 그릇이 성배가 아니라,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를 담은 것이 성배가 아니겠냐는 얘기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생리적인 피를 담았다라고 소설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것이 전설이 되어 버립니다.

그 작가의 이름이 프랑스 작가 로베르트 보롱이에요.
로베르트 보롱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쓸 때,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것이 그냥 전설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돼서 '진짜 성배가 어디 있을까?' 하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성배는 그 당시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한 은으로 만든 그 잔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정해주신 성배라는 얘깁니다.
'내 피와 내 찢긴 살을 진짜 담아야 될 성배가 너희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씀으로 해 주셨다는 얘깁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그것은 곧 내 마음이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담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내 마음이 성배가 되었을 때에, 과연 전설 속에서 나오는 그 은으로 만든 잔이 기적의 힘을 띤다는 것처럼, 무엇인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게 성만찬의 의미 아니겠어요?
'내가 성배가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 마음이 성배가 될 때에,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담는 예수님이 지정해 주신 성배가 내 마음입니다.
근데 그 내 마음이 성배가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은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 때 그 '흘리는 나의 피', 이 '흘리는'이라는 단어가 에크핀노메논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것은 현재 수동태분사입니다.
현재 수동태분사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흐르는 그 사건은, 영원히 나 개인과의 관계에서 현재사건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계신다는 얘깁니다, 십자가에 달려계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언제나 나와 나 개인과의 관계에서 현재사건으로 내 앞에 존재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흘리고 계신 그 주님의 피를 내 마음의 성배가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언제나 주님의 사건이 현재 사건이고 내 눈앞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명확하게 내 눈앞에 보이거늘,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지금의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담는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담는다는 데에.
지금 담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지금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내가 마음으로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게, 내 마음에 담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담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은, 내 마음이 성배가 되면서, 성배가 된 내 마음속에는 그 어떤 다른 것도 담길 수가 없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현재 흐르는 피, 현재 찢기신 주님의 살을 내 마음이 기념하며 담을 때에, 사업에 대한 걱정이 담길 수 없고 자식에 대한 걱정이 담길 수 없고 애인에 대한 생각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좀 더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만찬의 의미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 중에서 내 마음에 담아도 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오로지 우리 마음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그 피를 담는 성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아무것도 담아선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일이 뭐냐?
이렇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내 마음이 기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음 안에 담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찢기시는 몸과 흘리신 피와 연결을 시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식사는 노예로 살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하는 사건을 기억하는 식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어린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피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던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서 이어져서 8일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루, 무교절이 7일 동안 진행되며, 이 8일을 같이 붙여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과 연결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음이 기념하며 마음의 성배에 담게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해방의 사건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냐?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해방입니까?
노예생활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담는 자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됩니까?
마음의 매임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얘기에요, 마음의 매임.
제도적인 노예해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적으로는 노예로 살 수도 있지만 마음은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고,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요 자유인으로 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노예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이 노예상태에 있습니다.
그 노예상태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사업이 잘 안됐다, 사업이 안됐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우울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매여 있는 것이고 노예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생기니까 자식에게 매여 있는 것이고, 마음이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불안하고 우울 합니다, 화가 납니다.
아내와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아내에 매여 있으니까 아내에게 기분이 나쁘고 싸우고 화가 납니다.
이 세상에 마음이 매여 있어서, 이 마음에 나타나는 희로애락이 세상의 어느 것에 이유를 두고 있는 상태, 그것이 안 되면 기분이 나쁘고 그것이 잘되면 기분이 좋은, 그런 이유가 이 세상 안에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매인 것이고 노예 상태인데, 내 마음이 성배가 되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마음에 담을 때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매임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요.

자, 하는 일이 잘 안돼서 마음에 걱정이 생깁니까?

이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마귀의 속임수가 있느냐 하면,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것은 성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를 따르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라는 마음, 불안이라는 마음, 근심이라는 마음, 분노라는 마음,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 그리고 탐욕이라든지, 욕정에 사로잡힌다든지 이런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의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평강이 깨진 마음의 이유를 전부 다른 데로 돌리도록 요구합니다.
'사업이 안 되기 때문이다, 마누라가 말을 안 듣기 때문이다,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건강 때문에 네 마음이 그렇게 불안한 거다.'
자꾸 다른 것으로 이유를 돌리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노예화 작업이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내가 몸이 병이 들었을지라도,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암에 걸렸을지라도, 사업이 망했을지라도 나는 기쁠 수 있는 자, 이게 인간입니다.
왜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평강의 깨어짐이지, 하나님만 계신다면 지금 내일 아침에 목이 잘린다고 해도 평강은 유지가 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것을 전부 마귀가 돌려버리는 거예요, 속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예화 된 상태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원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을 해요.
마음수련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명상과 마음수련, 불교에서도 마음을 중시합니다.
이들은 적어도 어떤 점을 착안하고 있느냐 하면 마음이 이 세상에 어떤 것에 매이게 되면, 인연에 매이든지 일에 매이든지 간에 매이면,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몸까지 건강이 상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매여 있으면 괴롭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건 모르고, 단지 매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매임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야 진정한 해방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담는 성배가 될 때에 우리 마음이 자유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도 무관한 기쁨을 갖게 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셔야 돼요.
사업이 안돼서 걱정이 되면, '아~이게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드는 걱정이 아니다 사업이 안된다는 계기를 통해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안계시다는 게 드러나는 것뿐이다.'
자식 때문에 걱정이 생기면 '자식 때문이 아니라, 자식이라고 하는 계기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건강 때문에 걱정이 생기면, '건강 때문에 걱정이 생긴 게 아니라 건강이 문제가 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 있지 않다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배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특징은, 성배가 될 때에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의 피를 담을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매여 있던 노예상태,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더러움이고.
하나님만이 들어가 계셔야 될 마음의 정조가 더러워진 것이에요, 자식이건 나라건 국가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꼭 율법적인 항목을 어기는 범죄를 행위를 해야 죄가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마음에 담게 될 때, 마음이 매이게 될 때,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받는 성배가 될 때에, 그 피가 모~든 내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 주고, 그리고 약속, 새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셔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으면서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과 연관이 돼있는 거예요.

성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성배를 통해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만 성만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성만찬 의미를 생활화 하는 거예요.
내가 성배가 됩니다.
내가 성배가 되면 되는 겁니다.
실천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분명히 찾아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이제 내 마음에 언약을 따라, 새 언약을 따라 성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어떻게? 내가 죽은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은 것이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내 마음속에 담겨집니다.
오직 그것만을 집중해서 담을 때에,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사업, 가족, 나라 걱정, 내 건강 걱정, 내 미래걱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지요.
다~ 빠져 나가면서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이 세상의 매임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해방된 상태로 깨끗해져야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와 연합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나타나는 일은 마음에 평강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사업은 여전히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평강합니다.
자식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나라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이제 가정이던 나라던 직장이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 나라,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 가정.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나리오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끔 됩니다.
이게 바로 성배의 기적이에요, 성배의 기적.

그렇게 아서 왕의 원탁의 기사들이 기를 쓰며 찾으려 했던 그 성배를, 나는 내 마음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배에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담음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여 천국의 평강을 누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삶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나라를 담거나 가족을 담거나 사업을 담거나 내 인생의 비전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주님의 피를 담는 성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배를 통해 나타날 모든 기적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